

# 성서소방서 명칭 변경 건의안

의안 번호	972
----------	-----

발의연월일 : 2013. 12. 9.

발의자 : 김기석 의원 등 8인

(공동발의)

## 1. 주 문

달서구 및 달성군 일부지역(다사읍, 하빈면)을 관할하는 달서소방서는 관할구역 면적이 매우 넓고 인구가 약 68만 여명에 달하여 인구밀도 또한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성서공단,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공업단지의 급격한 팽창 및 용산·이곡동 등 부도심권 신시가지의 대단위 주거지역과 다사 죽곡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복합 다중이용시설 밀집으로 기존의 소방력으로는 증가하는 소방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다사읍 죽곡리에 187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4,936㎡를 확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소방서를 신축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존의 달서소방서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이 어려워 주민불편 사항을 경험했던 다사·하빈지역 주민들은 관내 소방서 신설을 적극 환영하며 한층 업그레이드 된 소방안전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사·하빈지역 주민들은 소방서가 착공도 하기전에 소방서의

명칭을 두고 크게 실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관할 달서구 지역(신당·이곡·용산동 일원) 주민들마저도 이를 의아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의 명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로 행정구역과 지역정서에 맞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명칭은 성서소방서로 한다는 것은 지역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서지역은 과거 달성군에서 분리되어 달서구로 편입된 지역으로 현재는 행정구역에도 없는 지명으로 다사·하빈지역 및 달서구관할지역 주민들로부터 소방서의 위치를 오해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여 주민들의 혼선만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신설소방서의 관할면적 중 다사·하빈지역이 전체면적의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방서가 건립되는 다사지역 주민들로부터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지역명이 들어간 소방서 명칭을 갈망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성서소방서가 아닌 다사소방서로의 명칭 변경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과 19만 달성군민은 행정구역과 지역정서에 맞는 명칭인 다사소방서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2. 제안이유

- 달서구 및 달성군 일부지역(다사읍, 하빈면)을 관할하는 달서소방서는 관할구역 면적이 매우 넓고 인구밀도 또한 굉장히

높아 기존의 소방력으로는 증가하는 소방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다사읍 죽곡리에 187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다사하빈지역 주민들은 소방서가 착공도 하기전에 소방서의 명칭을 두고 크게 실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명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로 행정구역과 지역정서에 맞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사읍 죽곡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명칭은 성서소방서로 한다는 것은 지역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서는 행정구역에도 없는 지명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방서의 위치를 오해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여 주민들의 혼선만 초래할 뿐임.
- 이에 신설소방서의 관할면적 중 다사·하빈지역이 전체면적의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방서가 건립되는 다사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역명이 들어간 소방서명칭을 갈망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구역과 지역정서에 맞는 명칭인 다사소방서로 명칭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본 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 3. 참고사항

- 성서소방서 명칭 변경 건의내용 1부.
- 건의안 배부 :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의회위원장, 대구소방안전본부장

## 성서소방서 명칭 변경 건의안

달서구 및 달성군 일부지역(다사읍, 하빈면)을 관할하는 달서소방서는 관할구역 면적이 매우 넓고 인구가 약 68만 여명에 달하여 인구밀도 또한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성서공단,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공업단지의 급격한 팽창 및 용산이곡동 등 부도심권 신시가지의 대단위 주거지역과 다사 죽곡지역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복합 다중이용시설 밀집으로 기존의 소방력으로는 증가하는 소방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다사읍 죽곡리에 187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4,936㎡를 확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소방서를 신축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달서소방서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화재 및 구조·구급 등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이 어려워 주민불편 사항을 경험했던 다사·하빈지역 주민들은 관내 소방서 신설을 적극 환영하며 한층 업그레이드 된 소방안전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사·하빈지역 주민들은 소방서가 착공도 하기전에 소방서의 명칭을 두고 크게 실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관할 달서구지역(신당·이곡·용산동 일원) 주민들마저도 이를  
의아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의 명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로 행정  
구역과 지역정서에 맞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명칭은 성서소방서로  
한다는 것은 지역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서  
지역은 과거 달성군에서 분리되어 달서구로 편입된 지역으로  
현재는 행정구역에도 없는 지명으로 다사·하빈지역 및 달서구  
관할지역 주민들로부터 소방서의 위치를 오해하게 할 소지가  
다분하여 주민들의 혼선만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신설소방서의 관할면적 중 다사·하빈지역이 전체면적의  
7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방서가 건립되는 다사지역  
주민들로부터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지역명이 들어간 소방서  
명칭을 갈망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반드시  
성서소방서가 아닌 다사소방서로의 명칭 변경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과 19만 달성군민은 행정구역과  
지역정서에 맞는 명칭인 다사소방서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

발의자 서명부

구 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원	배 사 돌	배사돌	✓
의 원	김 길 수	김길수	✓
의 원	김 기 석	김기석	✓
의 원	하 용 하	하용하	✓
의 원	정 수 헌	정수헌	✓
의 원	채 명 지	채명지	✓
의 원	송 성 열	송성열	✓
의 원	김 옥 순	김옥순	✓